

보세 요! 아픔과 기쁨, 희망이 담긴 소록도 400명의 얼굴을

십시일반 4000만원 모금 ‘아름다운 동행’ 벽화작업… 작가들 재능 기부

“주민들을 설득하고 벽화를 제작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픔과 기쁨, 희망이 함께 담긴 소록도 주민들의 얼굴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보고만 있어도 기쁩니다.”

3일 오전 고흥 도양읍 국립소록도병원. 찬바람이 바다 건너 소록도에 매섭게 불어왔다. ‘아름다운 동행, 소록도 사람들’ 벽화작업을 기뻐한 고흥수교미술관장과 재능기부로 벽화 제작에 참여한 작가 박대조, 고정희, 한정호씨는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화강석과 대리석 조각에 새긴 이미지들을 옹벽에 설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원과 경기도 용인 작업실에서 제작해온 28x 분량의 화강석과 대리석을 지난 2일부터 옹벽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장소는 소록도 병원에서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통로. 한해 50만 명이 이 길을 지나 중앙공원과 단종대, 감금실, 전시설 등을 둘러본다.

박대조씨는 “주민들의 얼굴을 찍은 400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지난 3개월간 작업한 결과물들”이라며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로 참여한 작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명의 작가들은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화강석 캔버스(52 x 89cm)와 대리석 캔버스 800여장에 주민들의 얼굴과 소록도, 소록도를 상징하는 사슴 이미지를 새겼다. 작가와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작업실에서 돌가위를 들이마셔야만 했다.

주민들의 얼굴은 맨질맨질한 대리석에 음각으로 작업해 아크릴 물감을 입혔다. 화선지가 먹을 흡수하듯 형형색색의 아크릴 물감을 머금은 대리석은 한센인, 자원봉사자, 주민, 간호사, 의사 등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백 가지 미소를 뽐내고 있었다.

대리석은 그리스, 이태리, 이집트, 오만 등 세계 10여 개국 제품이 쓰였다.



대리석을 사용하다 보니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예산 4000여만원이 훌쩍 뛰어넘었다. 추가로 쓰인 2000여만원은 박씨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박씨는 “암각화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보존되기 때문에 한과 질곡의 세월을 보낸 소록

도 역사를 대리석에 음각으로 새겨, 수천년 동안 잊히지 않기를 바랐다”며 “각국의 대리석을 사용함으로써 소록도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과 함께 간직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소록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형상화한 길이 110m, 높이 3m의 대형벽화 설치 작업은 앞으로 일주일 내에 마무리된다. 과거는 성난 사슴이 파를 내뿜는 모습을 모자이크 타일로 작업했다. 감금실과 단종대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당한 소록도 주민들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나게 된다.

현재에는 주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의 모습이 담겼다. 미래는 사슴이 초원이 뛰노는 이미지가 모자이크 타일로 설치된다.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희망만이 남은 소록도의 이미지가 작품으로 제작되는 것이다.

벽화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주민 전체의 얼굴은 소록도 이미지로 나타난다.

곽형수 관장은 “사진을 안 찍으려던 주민들의 손목을 붙들고 설득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며 “소록도 역사 100년만에 최초로 선보이는 예술작품 설치 기획을 격정 반, 우려 반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마무리돼 가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밝혔다.

5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한센인과 소록도병원 간호사 등 30여명이 직접 대리석에 새겨진 자신의 얼굴에 아크릴 물감을 입히게 된다.

곽 관장과 작가들은 ‘아름다운 동행, 소록도 사람들’ 벽화 제작이 마무리되면 소록도 병원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록도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구 신청사 미술품 선정 후유증 심각

광주전업미술가회 “공모·입찰 없이 작품 선정 문제” 성명서

최근 광주시 남구청 신청사 미술품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지역 미술계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시지회(이하 광주전업미술가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남구청 신청사 미술품 선정과정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광주전업미술가회는 “관에서 미술품을

을 설치하거나 선정할 때는 공모 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남구청이 미술품 선정과정에서 공모나 입찰을 하지 않고 교수 몇 명의 추천에 의해 작가들 작품을 선정한 것은 시의 심의와 상관없이 의구심을 자아낸만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청이 대학교수에게 추천을 의

뢰한 것은 최근 미술시장에서 전문가 그룹과 대학교수를 구분하는 것과도 지극히 상반되는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일부 작가들이 관에서 입찰과 공모를 통해 매입하는 작품을 수단과 방법, 가격과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자신들이 차지해 왔다”며 “미술 관련 단체에서 작품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업미술가회는 전업미술가들의 모임으로 전업미술가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운영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금남로 간판에 예술옷 입힌다

광주시, 3억4000만원 들여 예술간판 사업 추진

광주를 대표하는 금남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무질서한 상가간판이 예술간판으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 3가 거리 간판을 작가들이 디자인한 예술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3억4000만원을 들여 오는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금남로 상가간판에 예술적인 색상,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에게 금남로 상가 간판 디자인을 맡길 방침이다. 이는 기존 상업 디자인 측면만을 강조한 간판에서

벗어나 예술성을 더하기 위한 방안이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리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상가업주와 건물주 등이 참여하는 가칭 ‘주민 자율추진협의회’를 구성, ‘1업소 1간판 원칙’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금남로 사업 대상지에 있는 300여개 간판을 12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 2015년)이 있는 금남로를 문화가 흐르는 광주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간판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시아문화개발원

‘문화창조원 오픈 랩’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화창조원 오픈 랩(Open Lab)’ 행사를 열었다. 문화창조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 가운데 하나다.

이번 행사는 문화창조원의 창조·제작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미래공방’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어린이들은 창의 워크숍(과일로 연주하는 악기, 소리 나는 그림)에 참가해 과일과 야채의 전도성을 이용한 악기 등을 만들었다.

또 미디어아트 작가 목진요, 음악가이자 하드웨어 개발자인 권병준(고구마)씨 등이 참석, 문화예술과 창의과학이 결합되는 문화전당의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하찮은 수확, 빛나는 보석 되었으면”

81세 젊은이 이명한, ‘새벽, 백두정상에서’ 발간

광주와 함께 지난 시대를 헤쳐온 81세의 ‘젊은이’가 최근에 시집을 냈다.

‘새벽, 백두정상에서’(문학들)를 낸 그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마다 젊은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한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명한(사진) 선생은 여전히 젊다. 굳이 장유유서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그는 우리 사회의 어른의 역할을 다하려 애쓴다.

표제작 ‘새벽, 백두정상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썼다.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남쪽의 민족작가회의와 북쪽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문인 150여 명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통일시낭송회’를 할 때 읽은 시다.

“지상이건만 위가 없고/ 천상이건만 아래가 없는/ 육국이 하나로 모여/ 합창으로 신화를 엮고 있는 산”은 우리 민족만이 가진 ‘우주’를 형상화한다.

통일애의 웅혼은 자연스레 순수의 미학과 연계된다. 단순함과 순정함은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의 창작 원천이다.

“막걸리 한 사발에/ 물드는 여인/ 껌안고

올다 보니/ 저는 초승달”(‘주막집 삼파’중에서)

60여 편의 시는 ‘주막집 삼파’로 초점이 모아질 만큼 서정과 서경, 운율과 축약의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비유해서 팔십년 동안 쌓아올린 노력과 리를 불태워버리고 나서 잤다미 속에서 건져올린 몇 개의 벼 알이라고나 할까. 하찮은 수확이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황재이기에 빛나는 보석으로 둔갑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어림만큼 없는 일이고.”

선생은 시 쓰기의 고통 가운데서도 시가 지닌 긍정의 끈을 놓지 않는다. 81세의 노작가가 펼쳐낸 문학의 세계가 궁금한 까닭이다.

발문을 쓴 김준태 시인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통일의 산으로 떠받들어 올리는 시로 ‘올려의 세계’에 당도한 그런 감동을 더불어 안겨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창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광주⇄목포항 셔틀버스 매일 운항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 3만원으로 떠나세요.

셔틀버스+씨스타크루즈호 = 30,000원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jube.com 1644-2261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매일출발

[목포, 창흥, 완도, 녹동출발 크루즈 및 쾌속선 왕복] 155,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 - 트릭아트, 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산방산유람선(현지직불), 올레길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삼나무숲길, 몽골리안마사주 or 매직쇼 (현지직불), 에코랜드 or 선녀와나무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해녀촌

포함사항 : 광주[목포,창흥,완도,녹동]왕복 셔틀버스(45석 선착순),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 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 가이드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완도,녹동]터미널-[완도,녹동]항 이동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3월6일 ~ 7월19일까지 적용됩니다.